

광주·전남 3명 중 한명 '나혼자 산다'

호남통계청 '광주·전남 남과 여 조사'

광주 17만5000·전남 23만5000명
광주는 남성, 전남 여성 비율 높아
50% 이상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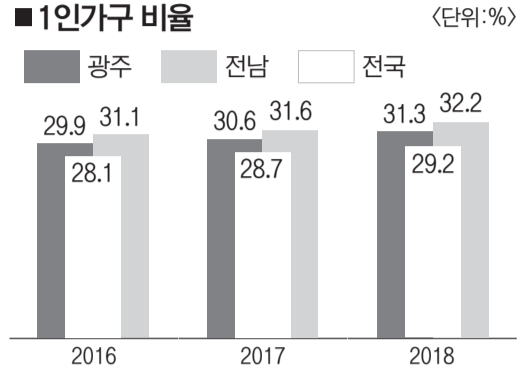
광주·전남 3명 중 1명은 1인 가구를 뜻하는 '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여성 57.1%, 전남 여성 49.4%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25일 발표한 기획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1인 가구 수는 40만9676가구(광주 17만5000·전남 23만5000)로, 일반 가구(131만5965)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31.7%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광주는 남성 1인 가구 비율(50.2%)이 여성보다 높았고, 전남은 여성 1인 가구 비율(54.8%)이 남성보다 9.6%포인트 앞섰다.

20년 전인 2000년 광주·전남 1인 가구 수는 19만명이었지만 5년 뒤 25만1000명으로 경종 뛰었고 2010년 31만명을 넘긴 뒤 2016년 39만2000명→2017년 40만3000명→지난해 40만9000명으로 매년 오름세다. 20년 새 1인 가구 수가 2배 이상(21만8790가구) 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세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



주의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광주 8.3%·전남 19.3%로 10년 전인 2008년(광주 24.6%·전남 36%)비율에서 반토막이 났다. 특히 광주지역 답변율은 전국 평균(11.1%)을 밑돌아 결혼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반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만 15~39세 3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광주·전남·제주지역 청년 43.5%는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30.7%),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17.6%),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6.1%),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2.2%)와 같은 답변도 뒤를 이었다.

비혼족 일부는 결혼 대신 '동거'로 눈을 돌렸다.

광주·전남 시도민 가운데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절반을 웃돌았다.

다만 같은 답변에 대한 지역별·성별 차이는 있었다. 이같은 답변 비율은 광주지역 남성 59%·여성 57.1%, 전남지역은 남성 54.3%·여성 49.4%로,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광주·전남지역, 두 성별 모두 절반 이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답변은 광주지역 남성 56.7%·여성 65.8%, 전남 남성 47.5%·여성 54.3%로 성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은 해마다 점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지역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75.9%·여성 66%, 전남은 남성 71.2%·여성 55.7%로 집계됐다.

노후 준비 방법은 모든 지역에서 남녀 모두 '국민연금'(광주 53.8%·전남 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이 광주 18.5%·전남 29.5%로 뒤를 이었고, 기타 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급여→부동산 운용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광주 51만8000명·전남 69만5000명이다.

광주은행, 신입사원과 연탄나눔

광산구 소촌동 조손가정에
연탄 1000장·겨울이불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25일 오전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조손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가졌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과 신입직원 등 약 50여명은 사랑의 연탄 1000장을 창고에 옮겼으며, 조손가정을 위한 방문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이불과 과일 등을 선별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5백만원을 전달해 나눔 봉사의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올 겨울 일찍 시작된 추위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과 신입직원들이 전한 정성이 우리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25일 오전 광산구 소촌동 조손가정에서 신입직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3.50 (+21.54) ↑ 금리(국고채 3년) 1.48 (+0.02)
- ↑ 코스닥 647.40 (+13.48) ↓ 환율(USD) 1176.00 (-2.90)

한전광주전남본부, 양동시장 전력설비 정비

야간·휴일에 작업 진행

한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구 양동시장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동시장은 수산, 견어물, 가구 등 약 340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실제 양동시장은 아케이드, 천막 등으로 인해 인력과 장비의 접근이 어려워 전력설비 유지보수가 어렵고, 시장 내 화재발생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 인천 소재

포구, 대구 서문시장 등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재래시장의 경우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소방공인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2020년 1월에 준공 예정이다. 사업완료 시 양동시장은 호남권 대표 현대화 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한전은 시장상인화와 협의를 통해 상인 및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에 작업을 진행한다.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세일금융·티디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01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주)세일금융과 (주)티디엘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은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수여하는 증명이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기업에게는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인증로고 활용 및 인증기업 담당자 해외연수·교육 지원, HRD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대수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장은 "인적자원개발 인증 기업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최종 약정도 가능

26일부터는 대출금리 인하 신청 뿐만 아니라 약정할 때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요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은행 고객의 경우,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에서 '대출-금리인하요구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질 것"이라며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